



우리나라의 직업병

가톨릭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 세 훈

Q :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 직업병이란 직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993년 현재 각종 유해인자에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수는 전체 광산 및 제조업체 근로자의 14.5%인 633,931명이고, 1인이 2가지 이상의 유해인자에 중복폭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의 건수는 해당 근로자수보다 많아서 782,274건에 이릅니다. 가장 흔한 유해인자는 소음으로 전체의 44.3%에 이르고 그 다음은 분진과 유기용제순입니다. 이 근로자들은 해마다 한두차례씩 그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기위하여 이른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직업병이 있는지를 보기위한 것인데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A, B, C, D로 구분합니다. A와 B는 건강자이며 D는 질병자임을 의미합니다. D의 경우는 직업병자임을 의미하는 D1, 그리고 질병자이지만 유해인자와는 관련이 없이 일반질병에 속하는 D2로 나뉩니다. 한편 D1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향후 주의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C로 분류합니다. C와 D1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더 이상 건강에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건강진단상 직업병은 일종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내려진 진단으

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병과는 다르며 따라서 D1이라고 해서 모두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에서는 해마다 직업병자수를 보고하고 있는데 요인별로 보면 소음성난청자와 진폐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납과 크롬중독의 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직업병자수는 약 7천여명이지만 최근들어 그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어서 1992년에는 5,942명이고 1993년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의 주된 원인은 폐광으로 인하여 진폐증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즉 점점 증가하던 진폐증환자가 1988년에는 6천여명에까지 이르렀다가 차츰 감소하여 1992년에는 2천4백여명으로 줄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광산이 폐광된다 하더라도 진폐증은 석제품의 가공이나 도자기공장 혹은 주물공장 등과 같은 제조업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되고 있는 직업병은 앞서 언급한 대로 연례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을 통하여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직업병 자체가 대개의 경우 급성적인 것보다는 종사하고 있는 직종과 관련된 유해인자에 장기적으로 직업적으로 폭로되어 발생하는 만성질환이어서 건강상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1년에 한두차례 행해지는 건강진단만을 가지고도 건강상의 이상유무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음성 난청과 진폐증입니다. 즉 일단 발생이 되면 더 진행될 수는 있어도 회복이 될수는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서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상에 이상이 있다 가 건강진단시에는 나타나지 않아 발견이 안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특수건강진단이 있는 날에 결근 등의 이유로 발견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적지않은 수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혹은 2차 정밀건강진단에서 누락되기도 합니다.

한편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임상검사성적에 의존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이점은 특수건강진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ABCD의 판정을 검사성적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직업병의 증상이 두통, 피로 등과 같이 비특이적이어서 증상만을 가지고 그것이 유해인자에 의한 것인지의 판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시에 근로자가 호소하는 자각증상을 자세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으며 2차 정밀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검사성적 외에 자각증상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전에 작업환경과 그 조건 그리고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선별에도 주의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Q : 향후의 우리나라 직업병 발생은 어떻게 될까요?

A : 이 점은 간단히 전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몇가지의 예로 대신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인구중에서 사망의 주요원인은 결핵을 비롯한 전염병이 주였으나 항생제의 발달과 환경위생의 개선, 식습관의 변천, 예방의학 발달 등의 이유로 전염병은 많이 사라진 반면에 최근에는 소위 성인병으로 불리우는 비전염성질환이 사망의 주요원인으로 되었습니다. 산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고농도의 유해인자에 폭로됨에 따라 급성중독성 질환이나 진폐증 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의 개선이나 자동생산, 생산제품의 변

화, 독성이 적은 물질의 사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직업병도 그 양상이 점점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선진국의 경우 가장 흔한 세가지의 직업병은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소음성 난청과 직업성 피부질환 그리고 반복작업 등에 의한 골근육계질환입니다.

필자는 1994년 6월에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산업장에서의 새로운 질환(New Epidemios in Occupational Health)”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심포지움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움에서 다룬 주요 주제는 ① 골근육계질환, ② 정신스트레스 관련질환, ③ 과민성질환(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직업성 천식 환자가 여러차례 보고되었습니다), ④ 새로운 중독성질환, ⑤ 전자와 같은 새로운 물리적 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등이었습니다. 직업병은 장기간에 걸쳐 직업적으로 유해인자 혹은 작업조건하에서 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도입된 물질이나 공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로인한 건강장해를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핀란드에서는 2차세계대전 전후에 건축자재로 석면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최근에 와서 전인구중에서 그로인한 폐암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한 학회에서 어떤 연자는 향후 산업장에서의 질병발생 변화와 그 대책으로 그림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산업장에서도 과거에는 결핵같은 전염병이 많았고 현재는 직업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에는 여러가지의 작업조건이 관련된 질환(예를 들면, 골근육계의 질병)이 주를 이룰것으로 전망되므로 대책도 과거의 질병대책에서 미래에는 전반적인 건강대책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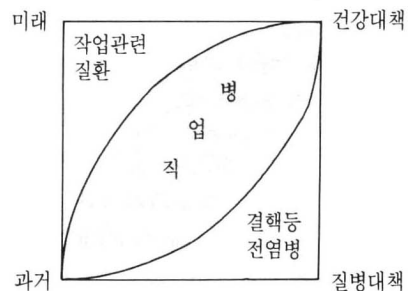


그림. 산업장에서 질병의 변천